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주의 말씀 듣고서(찬379/새204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승호 집사 2부/이선갑 장로 3부/이우영 집사 4부/김문정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이현철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열왕기상(1Kings) 18:41-46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0:10-2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Yohan Kim 김요한 목사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5) 'I AM' 선한 목자라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할아버지의 퇴근 길

Grandfather's Way Home from Work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퇴근하면서 우리 손주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주일에배 때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한 주 두 주 흘러갈 때가 많아서 갑자기 밀려오는 '보고 싶다~'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헬로? 아빠?" "응, 아빤데, 지금 일 끝나고 집에 간다. 잠깐 들려서 애들 보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어?" "어, 집에 있는데, 애들 자요?" "어?" "그러니깐, 나중에 오세요."

아빠의 그리움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단칼에 오지 말라는 딸의 말에 딸 집으로 가던 차를 다시 집으로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원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슴에 싸였던 정이 쓸려가면서 남겨진 빈 공터에 낙엽 하나가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우리가 애들 키웠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기분이 있었나 물어 봤습니다. 결혼 후 계속 신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부모님 곁에 있었지만, 졸업 후 부모님 집을 떠나 멀리서 목회를 했기에 아이들 보고 싶다고 불쑥 찾아오는 일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도 보지 못하는 손주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때,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찾아 뵙지 못한 것도 생각나고, 어느 자녀들처럼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마, 목회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다 덮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에서 "너와 똑같은 자식 나서 키워봐라"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손주가 자든 말든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아이들 잠자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에게는 할아버지의 그리움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갑을 훨씬 넘기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철없는 아들이 지난 40년 목회를 한다고 뛰어 다니면서 얼마나 성도들 마음을 헤아렸을까 싶어서 마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본인도 일하면서 육아의 책임에 힘들어 하는 우리 딸도 안쓰러워 보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우리를 키워왔어?" 우리 딸이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기 둘도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넷이나 키워나냐는 뉘드리입니다. 자식을 낳아보야 부모의 마음을 알 듯, 우리도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As the sun begins to set and I head home from work, my grandchildren come to mind, images of them flickering before my eyes. Even though we live close by, whatever makes us so busy that often, a week or two slips by without us running into each other, even during Sunday church service. Unable to suppress the sudden rush of 'I miss you~' that I call my daughter. "Hello? Dad?" "Yeah, it's Dad. I just finished work and I'm heading home. I was thinking of dropping by briefly to see the kids—are you home?" "Yeah, I'm home, but the kids are sleeping." "Oh?" "So, come visit another time."

Without even considering her father's longing, my daughter flatly told me not to come, so I turned the car around from heading to her place and head toward my home. On the way home, I called my wife. I couldn't explain it, but as the affection in my heart felt swept away, it felt as though a single fallen leaf was rolling across a vacant, empty lot. I asked my wife if our parents felt this way too back when we were raising our kids. Since I had to attend seminary even after marriage, I stayed near my parents. But after graduation, I left and did ministry far away. Because of that, my parents never showed up unannounced saying they missed the children, so I had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Still, I think my parents must have felt sad and disappointed about not being able to see their grandchildren. I remember not being able to take the kids to visit my parents during holidays, and I feel deeply sorry that I couldn't give them generous allowance like other children do. I believe that, perhaps, simply because I am in ministry, they have overlooked so much and shown such understanding, to this point.

Looking at disobedient sons and daughters, the parents say, "Just try having a child just like you and raising them," seems to be true. I guess being able to go see my grandchildren whenever I want, whenever I miss them, whether they are sleeping or not, isn't something I can do as I please. For parents who consider their children's bedtime important, it is only natural that a grandfather's longing gets pushed back in priority.

Only well after turning sixty, this foolish son is finally coming to understand his parents' hearts and is also wondering how well I truly understood the hearts of the church members while running around doing 40 years of ministry. I can't help but lower my head in humility. I also feel sympathy for my daughter, who works and struggles with childcare responsibility. "How did Mom raise us?" is something my daughter says often these days. She bemoans about how she finds even two babies hard, and how did Mom managed to raise four. Just as you must have children to know a parent's heart, before experiencing it ourselves, we simply know far too littl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요한 목사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41-46

1. 내 삶에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봅시다.
2.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3. 손바닥 만한 구름을 보고도 희망을 가졌던 엘리야처럼 나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희망이 무엇인가를 찾아봅시다.
4. 성경에 나타난 기적 2가지만 찾아 나누고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5.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한사람씩 "예수가 누구인가"를 외치면 모두가 "예수"라고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적용하기



■ 적용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선교지 소식
캄보디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베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특별한 해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자 은혜였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섬겨 왔던 캄보디아 캄퐁치낭의 작은 마을 학교에,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음을 다시 묵상하며, 저 역시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삶은 생각만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현지 리더십과의 협력과 정에서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델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귀한 은

사역의 첫 달, 베델의 BYM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1세대 성도님들이 함께한 단기 선교는 제게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

해였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보낸 지난 3개월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게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지만, 현지의 삶과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워 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제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며 순종하는 자리임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 품었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이곳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고전 3:7)

이석배 선교사

사역 간증
주일에배 2부

예배 섬김을 통해 배운 감사

처음 2부 예배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실 어떤 일을 할지도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간대가 익숙하지 않았고 아이가 가는 고등부 예배와도 시간이 맞지 않아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교회에서 가능한 한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겨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다니 언제 10개월이 지나갔나 싶은 마음입니다. 돌아보니 아이도 저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일찍 나오게 되고 2부 예배 찬양도 함께 할 수 있어 3부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주 주보를 나누어 드리다 보니 모르던 분들도 알게 되고, 반갑게 매주 인사 나누는 분들과 웬

지 모를 '장'도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연령대 성도님들을 볼 때면 코끝이 찡해질 때도 있고 뭔가 모를 따뜻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늘 뵈던 분이 안 오시면 걱정도 되고, 주보를 받지 않는 분, 아이패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심을 알아가며 인사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지만 10개월 동안 예배사역을 통해 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많은 부분이 주님 은혜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2부 예배팀에 있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도 감사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

간도 마음을 다해 예배사역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밝은 얼굴로 인사드리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사역을 섬김으로 받은 은혜가 많아서 돌아보니 모든 게 감사였다는 인사를 저도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보다도 훨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예배팀에도 감사드립니다.

김소영 집사



사역 간증

베델워십

매주 같은 자리, 같은 마음



베델워십팀을 섬기며 매주 새롭게 배우는 것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직접 강단에 서지는 않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팀원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배웁니다. 그 떨림과 두려움을 제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매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마음과 헌신이 필요한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팀장으로서 큰 은혜를 받는 순간도 바로 그런 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각자의 삶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매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두려움과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꾸준히 섬기는 팀원들을 보며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자리를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와 악기팀, 싱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각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찬양으로 어우러지도록 마음을 모읍니다. 서로 다른 악기와 목소리가 만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며,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함께할 때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매주 토요일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준비하는 팀원들을 보며, 이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노력과 헌신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시 그 자리를 지킬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심을 거듭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기도하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처음 주셨던 감사와 사랑을 기억하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베델워십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안성희 집사

사역 후기

연합기도회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교회에는 기도팀 안에서 세워진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레위기기도팀, 주님과 의 일대일 교제를 누리는 릴레이 골방기도, 환우들과 곤고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도하는 모임인 두드림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도를 함께 훈련하는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헬시바 이후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 연합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팀을 섬기기 전에는 연합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특히 헬시바 새벽기도 이후에 또 드러지는 기도 모임이기에 굳이 이런 모임을 또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기도를 생각하면 저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는 것처럼 여기던 마음이 있었기에 목회자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저의 개인 기도 제목이 아닌 나라와 민족, 믿지 않는 이웃들, 교회와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노역이 아닌 저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시간을 빼앗기고 나에겐 이득이 없이 소모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연합기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와 제 주변밖에 신경 쓰지 않던 제가 연합기도에서 목회자의 기도 인도를 따라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환우와 곤고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함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제가 누리는 은혜는 혼자서 알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힘내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보석함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을 자녀들에게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님을 아끼시며 예수님에게 자랑하고픈 특별한 한 분 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닌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승화 집사



믿음의 고백
새가족 환영회

사랑으로 만나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베델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베델교회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번 환영회는 따뜻한 환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모든 교역자분들과 사모님들을 한자리에서 뵈 수 있었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선물과 무엇보다 따뜻하게 반겨 주시는 모습에서 새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환영회에 참여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

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수고가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각자의 삶을 성실히 이어 가면서 새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내어 정성으로 섬겨 주신 많은 분들의 손길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더욱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교회의 일상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환대 속에서 막연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미국에서의 삶도 베델교회 안에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느꼈던 조심스러움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더 크게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믿음의 인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과 평안을 선물받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베델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저 역시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같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정화 집사



교회학교
창조과학 현장학습

A Journey of Discovery

One interesting thing I learned was the difference between an ape's face and a human's face. An ape's head is smaller than a human's, its eyes are harder to see from the side, and its face slopes more near the mouth.

On our way to the museum, we talked about whether the Big Bang theory is true. We had a tour guide named Josh, so I asked him whether the Big Bang was real. Josh explained that the Big Bang was scientifically impossible because a planet could not simply explode out of nowhere and create everything that exists. Instead, he explained what God created over six days.

We also explored Noah's Ark, dinosaurs, fossils, the Tabernacle, and many more exhibits. This was one of my favorite mu-

seums I've ever visited!

안지은(5학년)

I was amazed to see how big Noah's Ark was. It was big enough to hold two of every kind of animal! I also learned some science facts. I learned that dinosaurs were real creatures that God made, and I even got to see real dinosaur fossils. I also learned about how dinosaurs went extinct. We compared the bodies of a gorilla and a human, and I saw how different they are. I felt proud and amazed by how God made us more special than other animals. He made the way we move, the way our bodies are built, and the special ways we can think.

I was happy to learn that the things I believe are true. I am grateful that God made

this amazing world for me to live in.

이소윤(4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론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예수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정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경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경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103차 베델동산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베델교회의 영성 프로그램인 베델동산이 열립니다. 베델동산은 이 땅의 다양한 삶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 가정과 직장을 잠시 떠나레이크 엘시노가 보이는 갈릴리수양관에서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102차 베델동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가자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델동산 참가 대상자는 아직까지 베델동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봉사자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할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델동산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봉사자들의 진실된 섬김을 받게 됩니다.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를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이 신청서에 적어 주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천국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연말에 분주한 일정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은혜 주시는 천국 잔치에 주저하지 마시고 참석하시길 강력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초청합니다!

- ▶ 일정: 12월 18일(금) 오후-12월 20일 (주일) 오전
- ▶ 대상: 베델동산을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
- ▶ 장소: 갈릴리수양관 (출발은 교회에서 당일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 ▶ 봉사자 모임 일시(3회): 12월 3일(목), 12월 10일(목), 12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7시부터 식사 제공)
- ▶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장로 (949)232-0872



〈참가자 신청〉



〈봉사자 신청〉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11월)	10/25: ①부-정현근	②부-이양수	③부-윤대호	④부-김승진
	11/1: ①부-정광목	②부-장천경	③부-이준혁	④부-김유리
	11/8: ①부-조관희	②부-이근제	③부-정병철	④부-이유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	10/24: 이희정	10/31: 이원배	11/7: 임병규	11/14: 손세진
강단꽃(10,11월)	10/18: 이수민	10/25: 이인철	11/1: 이미옥	11/8: 이선옥, 이선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병주 | 의사-차계형(한 의사),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의사-김홍일(성형외과), 간호사-박수연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는 김요한 목사님(신현교회 담임)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수요말씀여행 네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노아 언약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 여러분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의노트는 현장에서 배포되며, 유튜브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0월 21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문의: 유아, 유치, K-5학년 대상,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THINGS ABOVE 전시회 및 북싸인회** 김한요 담임목사께서 성도들의 사랑을 말씀과 사랑으로 심방하며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그렸던 미술 작품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Things Above Ministries(TAM)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콜로새서 시리즈,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라!'가 출판되었습니다.(주보 삼지 참고)

일시/장소: 10월 24일(토) 오후 6시, 카페

◆ **103차 베델동산 모임** 103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일시: 12월 18일(금)-12월 20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장로 (949)232-0872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족을 '홈커밍 예배'로 초대합니다. 한때 베델의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주세요. 베델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① QR코드로(또는 부스에 오셔서) 초대하고자 하는 자녀/친구의 정보를 등록하시면 벡투베델 팀에서 행사 초대장을 발송해 드립니다. ② 다양한 음식과 액티비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재정후원,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멕시코 일일 선교 팀원 모집** 다가오는 11월 7일(토),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섬기는 멕시코 일일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는 의료 사역, 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 안경 사역, 노방 전도/찬양 사역, 건축 사역 등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의료와 미용 사역에 섬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모임: 10월 22일(목),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 **김한요 목사 주일설교 USB 판매** 김한요 목사의 주일설교 "Come & See 50-미라클"과 "LAFC-호세아서 강해"의 전편을 담은 USB를 코트야드 부스에서 판매(각 \$10)합니다. 전도에 널리 활용하실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전액 베델장학사역을 위해 쓰여집니다.

◆ **큐티인 11월호 판매** QTin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단기선교가 10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진행 됩니다. 안전한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오늘 2부 예배에 파송기도합니다.

◆ 축하해 주세요

- 김정훈/윤현혜 성도의 가정에 아들 준서(Nathan)가 10월 10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차규양 장로, 윤성자 권사의 차녀 Christine 양과 Myron 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토)에 있었습니다.
- 박기승 집사, 박승란 권사의 장녀 박은수 양과 이예인 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토)에 있었습니다.
- 윤치원 장로, 윤명희 권사의 차녀 윤지성 양과 한성준 전도사의 결혼식이 10월 17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민계식 집사님(민혜경 집사의 부친, 이민구 성도의 장인)께서 10월 13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Yohan Kim

There Is Still Hope

1 Kings 18:41–46

1. Think about a time when you face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your life. Share how God's grace has carried you through it and what gave you the strength to keep going.
2. Share a personal story of how God has answered your prayers. Then, take some time to reflect on what prayer really means.
3. Like Elijah, who saw hope in a small cloud the size of a man's hand, what is something in your life that you need to keep believing and hoping for, even when things seem impossible?
4. Find and share two miracles from the Bible. What do these miracles reveal about God and how He works in our lives?
5. Jesus is the answer to every problem! Let's go around the group, with each person calling out who Jesus is, and everyone responding loudly, "Jesus!" Who is our hope? JESUS!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When you meet God, everything will be accomplished if He helps